편집후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유익한 「건설기술|쌍용」을
만듭니다.

현장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 새로 적용하는 기술,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까운 노하우를 『건설기술|쌍용』에 풀어 놓으세요. 여러분의 귀한 지식과 경험을 정성껏 엮어 보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Trouble Shooting, 기술칼럼, 신기술 · 신공법, 현장리포트, Q&A 등에 직접 참여하고, 『건설기술|쌍용』에서 다룰만한 참신한 기획거리도 알려주세요. 보내주신 기술정보를 『건설기술|쌍용』에 소개하고, 참여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쌍용인의 동반자 『건설기술|쌍용』은 언제나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알립니다 |

『건설기술|쌍용』을 위해 일하게 된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김지현 대리 | 편집위원 기술개발부
02-3433-7113
judy@ssyenc.com

| 원고접수처 『건설기술|쌍용』을 함께 만드는 편집 · 실무위원들 |

편집위원장 최장식 전무 (7064, choijangsik@ssyenc.com)
기술개발부 정대용 차장 (7706, danielyc@ssyenc.com)
전우태 대리 (7709, jeonwt@ssyenc.com)
기 획 부 최세영 팀장 (7117, chltpdud@ssyenc.com)
김지현 대리 (7113, judy@ssyenc.com)
토목기술부 이기환 차장 (7772, ikhjin@ssyenc.com)
김창수 대리 (7767, conshot@ssyenc.com)

「건설기술 | 쌍용」은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 1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발간되며, 발간일 2개월 전까지 의견을 주시면 편집에 반영됩니다.

건설기술 | 쌍용

2004년 가을호 통권 제 32호(비매품)

발 행 인 김석준
발 행 일 2004. 9. 1
발 행 처 쌍용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3
TEL : 02-3433-7114 FAX : 02-3433-7739
www.ssyenc.com / www.ssict.co.kr
e-mail : danielyc@ssyenc.com
Jeonwt@ssyenc.com
편집디자인 디자인폭스 (TEL : 02-730-0264)

외암마을의 조경과 문화경관

자연을 대하는 마음과 외암리 조경

자연에 도전하고, 자연을 이용하려는 서양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동양에서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써, 즉 자연 앞에서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똑같은 존재로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조원(造苑)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을 속된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은 자연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했다. 집터를 잡을 때에도 자연과 어떻게 어울리게 하느냐를 먼저 생각했고, 또 어떻게 집을 지어야 주변의 산과 물과 바람과 잘 어울리느냐를 생각했던 것이다. 자연의 순리가 집을 포함한 조경의 기본 질서라고 생각했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자연과의 조화를 기본 원칙으로 여겼던 것이다. 말하자면 자연에서 인간이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는 개념이다.

동양에서 조경의 기본개념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생각과 배경을 지니고 있었으나 경관을 만들어 내는 유형에 따라서 서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었다. 예를 들면 궁전에 만들었던 궁원(宮苑)과 절에서 만들었던 사원(寺苑), 나아가 마을의 조경, 살림집의 조경은 비록 같은 생각에서 만들었지만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 되었던 것이다.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살림집이지만 그저 살림집만 모여있다고 마을이 제 모습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을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주공간인 살림집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생명을 이어주는 교통로, 경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공기를 맑게 정화시켜주는 숲과 수목 등이 한데 어우러질 때 마을의 모습이 제대로 갖추어 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을의 경관을 만들어 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조경요소이며 이 요소들은 각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대

• 글 · 사진 | **전 우 태** 대리